

MNA 로 평가한 급식서비스 이용노인의 영양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경희*, 최미숙¹⁾, 정순들²⁾, 박정숙³⁾, 채인숙⁴⁾. 서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충청대학 식품영양학과¹⁾,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²⁾ 천안외국어대학 외식산업과³⁾, 동해대학교 관광외식산업학과⁴⁾

노인은 영양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농촌노인의 영양불량이 지적되고 있다. 급식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영양개선과 사회정서적 안정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기관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주1회 급식하는 곳과 매일 급식하는 곳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 급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30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식습관, 사회적지지와 고독감을 조사하였고, 신체계측, 식이섭취조사, MNA방법에 의해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급식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중 여자가 64.4%, 남자는 35.6%였고 평균 연령은 74.1세, 무배우자 비율은 57%, 독거노인가구가 30.7%,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25.2%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급식서비스의 본래 의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140mmHg) 비율은 40.2%, 평균 BMI는 남녀 각각 22.3/23.6(kg/m²), BMI 20이하의 저체중 노인 비율은 18.6%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6점 만점에 평균 2.77, 고독감은 80점 만점에 45.00, 식습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15, 평균 MAR값은 남자 0.64, 여자 0.59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NA 평균 점수는 남자가 22.8±3.2, 여자는 21.5±3.2 로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MNA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1), 남녀 모두 평균은 영양불량 위험 범위(17.0~23.9이하)에 속하였다. 전체노인의 33%만이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여자노인들의 영양불량 위험에 속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75세 이상 노인보다 74세 이하 노인의 MNA 평균값이 유의적(p<0.05)으로 높았으나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 매일 운영되는 급식소 이용노인보다 주1회 운영되는 급식소 이용노인의 MNA 평균값이 유의적(p<0.001)으로 높았다. M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결과 주1회 운영이용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이 좋을수록, 식습관이 좋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MAR가 높을수록 영양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요 변수들에서 운영일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1회 운영되고 있는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매일 운영되고 있는 급식소 이용 노인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많고 고독감은 더 낮았으며 체위, 영양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경제수준이 더 양호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영양불량 위험율이 높은 노인의 경우 매일 급식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료급식은 이 취약계층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이들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지원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